

투데이

광주·전남 외국인 6만명 시대

1년새 10.6%↑…공단 많은 광산에 7800명 거주

국제결혼 늘면서 외국인 자녀수도 1만5000명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6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의 수도 1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각각 21만649명, 3만9006명으로, 총 5만965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만3901명보다 5754명(10.6%)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의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146만3464명의 1.

4%에 해당하며, 전남은 전체 인구 191만4339명의 2%에 해당된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3만9985명(광주 1만5099명·전남 2만4886명), 한국 국적 취득자는 4981명(광주 1624명·전남 3357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1만4689명(광주 3926명·전남 1만763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1만9267명(광주 6333명·전남 1만29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 이민자 9754명(광주 2966명·전남 6758명), 유학생 5191명(광주 3094명·전남 2097명), 외국 국적 동포 2082명(광주 993명·전남 1089명) 순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혼인 귀화자가 4420명(88.7%)으로 많았다.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거주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자가 1만90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9152명 ▲필리핀 3034명 ▲남부 아시아(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 등) 2066명 ▲캄보

디아 1773명 ▲중앙아시아 1503명 ▲미국 1476명 ▲인도네시아 1224명 ▲일본 1153명 ▲태국 1137명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공업단지가 산재한 광산구에 가장 많은 7864명이 살고 있고, 북구 4390명, 서구 1818명, 남구 1358명, 동구 1293명 순이었다. 전남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목포(1845명), 여수(1673명), 영암(1605명), 순천(1602명) 순으로 많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국내 인구 증가세보다 빠르다”며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나라꽃 무궁화 꽃잔치’
화이어 길에서 8일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무궁화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꽃잔치에는 11종 2700그루의 무궁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

한전KPS 나주 연수원 물건너 가나

환경청 “나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적발” 제동

KPS측 협약 파기 법률 검토…대전 건립 추진 중

한전KPS가 나주시와 맺은 종합연수센터 건립 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着手하는 등 KPS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연수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한전KPS의 연수원 건립계획서를 최근 다시 반려했고, KPS측도 다른 지역에 연수원을 세울 계획이다.

9일 한전KPS 관계자는 “최근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나주시와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연수원 건립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 나주시와 맺은 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이 공문을 통해 KPS측에 ‘혁신도시 부지나 나주의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 연수원을 건립하라’고 전달했다.

하지만 KPS는 혁신도시 부지가 원래 계획된 연수원 부지인 다음면 다음면 인근의 땅보다 13~15배 가량 비싸고, 부지 변경에 따른 응역 기간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PS는 법률 검토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 지난 2008년 나주시와 맺은 연수원 건립 협약을 파기하고, 대전에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정부의 지시나 행정적 제안 ▲불가항력적 사유 ▲회사 파산 등의 사유로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이 KPS 연수원 건립 계획에 제동을 걸 것은 나주시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적발돼 개발사업 인허가를 제한하는 폐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당량 이내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또 다도읍 인근에 앙동식물보호구역이 있고, 수변 경관이 파괴되는 문제 등도 크게 작용했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해 연말, 지난 3월과 7월 KPS측에 사실상 다도읍 인근에 연수원 건립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한전KPS 한 관계자는 “연수원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충하라는 등의 환경청 요구에 맞춰 수차례 건립계획을 옮겼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충북 태안의 연수원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풍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신규 직원 20명 모집

광주도시공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직원 모집을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5명 ▲기술직 13명 ▲업무직 2명 등 총 20명이다.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내달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합격자는 9월 27일 발표할 예정이

다. 원서는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 받으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062-600-6641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中 뤄양시 우호교류 협정

광주시와 중국 뤄양(洛陽)시가 우호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리유우선 뤄양시장 일행은 오는 14일 광주를 방문해 강운태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 간 우호교류도시 협정을 체결한다. 양 도시는 협정을 통해 경제, 무역, 농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고 특히 투자유치와 경제 무역 상담회 개최 등 경제발전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뤄양시에서 계획하는 신도심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에 광주지역 LED제품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공석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에 김대기(56·시진) 경제수석비서관을 겸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

또 김명식(54) 인사비서관을 인사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고, 임재현 뉴미디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내정했다. 이와 함께 김병진(47) 정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정무비서관에, 임성빈(47) 녹색성장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신설된 기후환경비서관에 각각 내정했다.

김 인사기획관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정부 23회로 중앙인사위 정책홍보관리관,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제주 출신인 임 성1부속실장은 제주 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2005년 4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부터 수행비서역을 수행해오다가

국정홍보비서관·뉴미디어비서관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정책실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부 22회로 관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을 지냈다.

김 인사기획관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행정부 23회로 중앙인사위 정책홍보관리관,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제주 출신인 임 성1부속실장은 제주 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운운해 대사부고와 미국 조지타운대학 외교학과를 나왔으며, 대통령의 전인비서관 행정관·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을 지냈다.
김 정부비서관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장 정무특보·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인 임성빈은 기후환경비서관은 중앙대사부고와 미국 조지타운대학 외교학과를 나왔으며, 대통령의 전인비서관 행정관·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서규용 농수산 장관
전남 적조현장 방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전남을 방문, 적조현장 방문에 내려진 여수시 돌산도 해역을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서 장관은 어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풍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생물자원 연구 국비 126억 확보

전남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9개 연구개발사업이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올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전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과 도내 9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전남지역 특산자원인 울금을 활용, 바이오 생리활성 소재를 개발하고 고도불포화지방산 고순도 함유제품의 제조기술 개발과 분말화 연구사업도 추진한다.

또 틈새 녹색 자원을 이용한 항콜레스테롤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이번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됐다. 이를 사업에는 정부 연구개발비로 바이오활성소재·바이오식품에 각각 매년 27억원과 15억원이 지원되는 등 올해부터 3년간 모두 12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총 매출이 2300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출 800억 원, 고용 창출 660명 등의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풍록기자 kroh@kwangju.co.kr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1)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한국한문지도사(민간자격)

(2) 국가인증 기관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